

해남, 민선8기 군민과 약속 실천 89% ‘눈에 띄네’

111건 중 72건 이행 완료…“군민과 약속 착착”

삶의 질 향상·미래성장동력 확보 쌍꺾이 성과

해남군이 민선 8기에도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신뢰받는 군정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의 전체 이행률이 89%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해남군 공약은 5대 분야 11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72건은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33건은 정상추진 중이다. 추진중인 33건은 각 사업의 추진단계별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조기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3년 동안 군은 공약이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해남역 개통 등 주요사업들이 완료됐고, 농

촌공간정비사업과 체육관 건립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군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눈에 띄게 속도를 높이고 있다. RE100 국가산단 조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면서 민선 8기 4년차의 성공적인 마무리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공약이행률 92% 달성을 목표로 남은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별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해남군은 최근 민선 8기 공약이행 현황점검을 위한 2025 군민평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군민평가단은 공약 추진 과정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기 위한 참여기구로, 만 18세 이상

군민 중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천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됐다.

군민평가단은 향후 공약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과 제안사항을 제시에 정책 결정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은 군민평가단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최종 권고안과 수용 여부를 해남군 누리집에 공개해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공약이행을 제고를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정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 해남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58239@gwangnam.co.kr

외국인 유학생과 나주읍성 문화유산 체험 ‘호응’



나주시는 최근 나주정미소와 나주읍성 일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나주읍성 문화유산 투어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 전남대 유학생 70여명 참여…원도심 투어 “역사·문화유산 활용…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나주시가 전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70여명과 함께 나주읍성 일대에서 문화유산 탐방과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열어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적 매력을 알렸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정미소와 나주읍성 일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나주읍성 문화유산 투어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나주의 대표 역사 자원인 나주읍성과 전통문화 공간을 체험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과 협력해 진행한 행사에는 20개국 7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금성관, 목사내야, 서성문 등 주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나주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소리정원 나주신

청문화관에서 나주시립국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 민요의 흥겨운 선율을 함께 즐겼다.

또 나주정미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공연과 전통 김슬 무예 시연, 전통 의복 체험 부천개와 가래떡구이 만들기 등 한국 전통 간식 만들기 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한국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나주를 경험하도록 원도심의 관광과 문화자원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나갈 것이다”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

남도4색 요리페스티벌로 강진만 ‘들썩’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참여…남도 맛·정 선포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2025 남도4색 요리 페스티벌’이 최근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메인무대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민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남도의 대표 4개 군(고흥·보성·장흥·강진)이 보유한 특산품과 우수 식재료를 활용한 이색 요리 체험형 페스티벌로 진행됐다.

가족 단위 관광객 40팀(약 120명)이 참여해 각 군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밑거름을 조리하며 ‘맛으로 하나 되는 남도’라는 주제 아래 즐겁고 화합된 시간을 가졌다.

행사 현장에는 참가자들의 요리 향기가 가득했고, 라이브 음악공연과 진행자의 재치 있는 멘트가 어우러져 요리와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형 무대가 펼쳐졌다.

참가 가족들은 남도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개성 있는 요리를 완성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웃으며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행사의 마무리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한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 참가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한 곳에 모아 함께 즐기는 파티’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한자리에 모아 나누며, 남도의 맛과 정(情)이 어우러진 교류의 장을 완성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진군이 주관한 ‘2025 남도4색 요리 페스티벌’이 최근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메인무대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민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성읍·성산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국비 등 843억 투입
침수 문제 해소 기대

장성군은 최근 환경부의 ‘2025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총사업비 843억원을 확보했다.

장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성을 시가지(장성지구)와 성산지구의 상습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장성을 시가지와 성산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하천 수위 상승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해왔다.

이에 군은 해당 지역의 취약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에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피해 정도,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장성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자체 17개 지역을 올해 중점관리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군은 총 843억원을 투입해 빗물 배출의 핵심 시설인 빗물펌프장 3곳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9.5km 구간의 관경 확대와 노후관 개량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에 나선다.

군은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성군은 최근 환경부의 ‘2025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총사업비 843억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장성배수펌프장 현장 점검에 나선 김한중 군수.

김한중 군수는 “환경부의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장성읍과 성산지구의 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함평, 농가자립 유통기반 강화
농산물 판매·홍보 새모델 제시

함평군이 지역 농가의 자립형 유통기반 강화에 성과를 거두며 농산물 판매와 홍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핵심 유통 농업인 판매기술 확산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결합한 맞춤형 판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 8월부터 BK시들리스포드 청년 농부와 토종 대대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지원을 진행하며, 온라인 홍보·라이브커머스·SNS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약 2200만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모 핵심 유통 농업인(농가 인플루언서)을 중심으로 ‘함담 로컬크리에이터 홍보단’과 ‘담글 블로그 동아리’ 회원에게 홍보·판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지역 농가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특화 품목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함평군은 농업회사법인 ‘해들’과 협력해 지난달 25~26일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현장에서 대규모 홍보·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함평=최원근 기자 6263739@

담양, 금연상담 우수기관 선정
체계적인 클리닉 운영 등 호평

담양군은 주민 금연 지원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연상담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 최근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금연 분위기 확산과 흡연 예방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군은 체계적인 클리닉 운영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거두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흡연자의 특성과 기간을 고려한 1:1 맞춤 상담, 보조제 제공, 심리·행동 상담 등을 통해 금연 성공을 돕고 있다.

특히 직장, 마을회관, 학교 등 생활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군민 참여를 높이고,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표창은 금연을 결심한 대상자의 노력과 이를 돕기 위해 애쓴 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연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